

글로벌 그룹 엑소, 희망과 화합 노래한다



정규 4집 '더 워(THE WAR)'는 그룹 엑소(EXO) 특유의 세계관을 알리는 앨범이다.

엑소는 1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정규 4집 '더 워', 지금까지 세계관 정립

타이틀 '코 코 밥', 처음 레게 장르 도전

워커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규 4집은 지금까지 활동해온 세계관을 정립하는 앨범"이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입을 모았다.

시우민은 "데뷔 때부터 엑소만의 스토리를 선보였고, 멤버들은 초등 학자라는 콘셉트였다"며 "엑소가 선보일 새로운 세계관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정규 4집 '더 워'에는 총 9곡이 담겼는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그룹인 엑소는 이번 앨범에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세훈은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엑소는 글로벌 그룹인

믿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백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멤버들이 강한 자신감을 보인 이번 앨범을 대표하는 타이틀곡은 '코 코 밥(Ko Ko Bop)'이다. 리드미컬한 레게 기타와 무게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레게 팝 곡이다.

노래 제목인 '코 코 밥'은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이라는 뜻으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레게 장르에 도전한 엑소가 울여울 어떤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진다.

백현은 "요즘 핫한 장르인 EDM이 더해 레게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거리낌 없이 리듬을 타며 즐길

수 있는 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곡에도 엑소가 선보일 스토리 텔링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백현은 "다같이 즐겁게 노래하자 는 내용이기도 하고 세계관 스토리 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날 밤을 표현한 곡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엑소의 정규 4집 '더 워' 전곡 음원은 18일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음반은 19일 발매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코 코 밥'을 비롯해 '전야', '왓 유 두?', '포에버', '나이아모드', '너의 손짓', '소름', '기억을 걷는 밤', '내가 미쳐' 등이 수록됐다.

수호는 "지금까지 선보인 세계관을 정립해서 구체화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의 앨범"이라며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 등에 세계관에 대한 '핵심'이 많다. 집중해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선·박명수, 드라마·비드라마 화제성 1위



'풀위있는 그녀' 김희선이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 '무한도전' 박명수가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

본 조사는 TV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10일부터 16일까지 방송중이거나 방송예정인 드라마 31편의 출연자 370명, 비드라마 178편의 방송 출연자 또는 방송에서 다룬 주제 2,732건(명)에 대한 네이버 반응을 온라인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SNS, 동영상 조회수를 통해 분석하여 17일에 발표한

로맨스와 스릴러 장르를 오가며 시청자와 밀당했던 SBS '수상한 파트너'가 해피엔딩으로 종영되었다. 꾸준한 화제성 상위권을 유지했던 자창옥(▲3)은 2위, 남지현은 지난주 보다 6계단 뛰어 올라 7위를 차지했다.

KBS2 '쌈, 마이웨이'도 현실 청춘의 사랑과 꿈을 잘 그려내며 네이버의 많은 박수를 받으며 종영했다. 고동만 역의 박서준은 전주와 변동 없이 4위, 최애라 역의 김지원은 5위(▲4)였다.

지난주 보다 '볼수록 재미있다'는 의견이 늘었으나 tvN '하백의 신부' 두 주인공은 10위권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신세경은 4계단 하락해 6위, 남주혁은 7계단 내려 약 8위를 기록했다. 9위는 KBS2 '학교 2017'을 통해 연기에 도전장을 던진 진세정이 드라마 출연자 순위에 새롭게 진입했다.

비드라마 부문은 MBC '무한도전' 진짜사나이 특집에서 문대장 역 할로 웃음을 책임진 박명수(▲3)가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들은 흑곰 교관마저 웃겨 만든 박명수의 예능

김선아에게 웃김 당한 이태 임도 16계단 상승, 금주 10위를 기록했다.

MBC, 대대적 개편...일일극·예능 편성 이동

MBC가 오는 29일부터 평일 밤 시간대 경쟁력 제고 및 핵심시간 콘텐츠 차별화를 골자로 개편을 시행 '젊은 방송' 이미지를 강화 한다.

우선 MBC는 평일 밤 9시대 요일별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월~금曜일 저녁을 이끌던 UHD 특별기획 '별별며느리'는 매주 월, 화曜일 저녁 8시55분

분 연속 편성돼 65분씩 방송된다.

전반 반려동물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큰 호응을 얻었던 '하하밴드'는 수요일에, 신개념 추리 프로그램으로 과일릿 방송 당시 화제를 모았던 비스터리 랭크쇼 1,2,3'은 '랭킹쇼 1,2,3'으로 이름을 바꿔 금요일 저녁 8시55분 전격 편성된다. 또한 탄탄한 시청률을 자랑하는 '리얼스토리 눈'은 더욱 심화된

콘텐츠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55분 65분풀로 인기를 찾는다.

또한 시청층 확대를 위해 핵심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이동한다. '광피디' 등 방송국 간 컬래버레이션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은 토요일 밤 11시대로 90분 확대 편성된다. 특히 이경규 등 새로운 인물들이 투입돼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 시간에는 미국적 풍광과 멤버 간 화합으로 눈과 미음을 정화해 준 로드 버라이어티 '오지의 미법사'가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 본격 입장해 방송 '오빠생각'은 월요일 밤 11시대로 이동해 출연자와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해당 시간대 방송되던 'MBC 스페셜'은 목요일 밤 11시대로 편성을 옮겨 방송된다.

보이그룹 데뷔와 싱글 발표를 선언한 연습생들도 있다. 장문복이 오는 20일 싱글 '같이 걸을래'를 발표한다. 김용국과 김시현은 오는 31일 음원을 발표하고 유닛 활동을 펼친다. 임영민과 김동현도 오는 8월 데뷔를 목표로 유닛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주학년은 하반기 데뷔할 소속사 보이그룹 더보이즈로 데뷔 준비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음력 5월 26일)



▶ 36년생 긍정적으로 .48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0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9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3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5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8년생 외출을 삼가라. 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1년생 산행을 삼가라.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40년생 .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42년생 구설수에 조심하라. 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6년생 누적된 불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 78년생 순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 90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43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5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7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9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91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32년생 베푸는 마음을 길러라. 4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5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6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5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46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돋도 해진다. 58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0년생 손수에 조심해야 한다. 82년생 꿈을 접지마라.



▶ 35년생 털어낼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를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맘초자 마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